

사기꾼과 건강한 경계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사기꾼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그 이면에 숨은 의도를 늘 의심해야 한다. 말과 태도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방심해선 안된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이 너무 빠른 속도로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자신을 특별히 대우해 주면서까지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한발 물러서서 살펴봐야 한다. 상대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거나 타인을 조종하려 드는 기색이 보이면 설령 겉모습은 훌륭해 보여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신중하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기꾼의 성격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다크 트리아드(dark triad)다. 사회적으로 어두운 성향을 보이는 세가지 성격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다. 즉나르시시즘(자기애), 마키아벨리즘(권모술수), 사이코패시(반사회성) 등 세가지 특성이다. 자기애적 과신과 특권 의식, 타인을 조종하려는 병혹한 계산심, 양심 부재와 공감 부족이라는 세가지 면모는 사기꾼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서 심리 프로파일이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배경이 탄탄한 사

람이라고 해서 방심해선 안된다. 사기꾼들은 특정한 가정 환경이나 학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든 야망과 유혹이 맞물리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을 볼 때 막연한 편견에 기대기보다 실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평소 돈이나 성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분위기나 조직 문화에는 스스로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윤리적인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사기꾼이 될 수 있는 토양을 말리라고 주변에서 그런 인물이 나타났을 때 일찍 포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기꾼은 사랑, 욕망, 공포를 악용한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시간 속에서 검증된다.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갑작스레 운명을 운운하며 금전 요구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마음이 끌려도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좀 이상하지 않니?”라고 만류할 때 그 조언을 흘려듣지 말고 “혹시 사기가 아닐까?”라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달콤한 말 뒤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투자 사기는 인간의 금전적 욕망, 그중에서도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벌고 싶다’는 탐욕을 노리는 범죄 형태다. 너무 그

렇듯하게 들리는 투자 제안이라면 우선의 심부터 하는 것이 상책이다. 고위험인데도 담보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권유하더라도 금전 거래와 투자만큼은 반드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시된 정보의 진위를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단기간에 확정 수익 보장’ 등 투자 원칙에 어긋나는 약속은 일단 거리를 뒤야 한다. 사기꾼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좀 더 쉽게 돈 벌고 싶다’는 심리를 파고든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피싱 사기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 통신수단과 IT 기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스미싱(문자 메시지 내 악성 링크), AI 피싱 등이 대표적이다.

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긴급해 보이는 전화나 문자를 받아도 즉시 대응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진위를 차분하게 확인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목소리가 실제와 비슷하게 들리더라도 제3자를 통해 진위를 교차 검증한 후 대응해야 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는 건강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미토스가 던진 경고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금융권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상담 챗봇부터 이상거래탐지(FDS), 대출심사, 내부 업무 자동화까지 AI는 금융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 AI기업 엔트로픽이 공개한 차세대 모델 미토스는 금융권 AI 양면성을 다시 일깨웠다. 미토스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스스로 분석해 숨어 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고, 침투 가능 경로까지 설계

할 수 있다. 과거 해커가 수주에서 수개월 걸쳐 찾던 시스템의 약점을 AI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토스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주는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악의적 공격 주체가 이를 활용할 경우 금융사의 시스템 구조를 빠르게 분석하고,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해킹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리스크로 꼽힌다.

특히 금융권은 계좌이체망, 카드 승인 시스템, 인터넷뱅킹 등 복잡한 레거시 시스템 비중이 높아 작은 허점 하나도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전산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는 해커가 오랜 시간에 걸쳐 시도해야 했던 공격이 AI를 통해 훨씬 빠르고 정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제 AI를 얼마나 빨리 도입할지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생성형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내부망 분리, 외부 AI 활용 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기본적인 통제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은 오히려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산업이다. 한 번의 보안 사고는 단순한 전산 장애를 넘어 고객 불안과 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AI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속도에만 매몰돼 안전장치 마련을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

/yul11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7일 (음 3월 1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거뿔 실패가 계속됩니다. 60년생 매사가 안절부절입니다. 72년생 과로를 피하고 잠시 휴양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4년생 뒷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49년생 당당하던 기세가 한풀 꺾일 때입니다. 61년생 근심하며 수양에 힘쓰도록 하세요. 73년생 남쪽으로 향하세요. 85년생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50년생 좋은 운은 늘 오지 않습니다. 62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74년생 개업이나 전업을 흥합니다. 86년생 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빠른 치료를 해야 합니다.



51년생 괴이한 곳에 가지마세요. 63년생 동쪽에서 온 사람과는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75년생 음식을 조심하세요. 87년생 취직은 낮은 데로 지원했다면 합격입니다.



52년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64년생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76년생 직업을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88년생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53년생 호화로운 삶을 꾸려 나가며 가족들과 기쁨을 같이 합니다. 65년생 금의환향(錦衣還鄉)하는 운세입니다. 77년생 고난이 다가옵니다. 89년생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54년생 편도선질환을 주의하세요. 66년생 조연을 가슴 깊이 새기세요. 78년생 본인의 마음가짐을 중요한 것입니다. 90년생 싸움에 휘말리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55년생 주변인들이 스스로 도우니 모든 일이 뜻대로 됩니다. 67년생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79년생 큰 돈을 만지게 됩니다. 91년생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56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68년생 새로운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80년생 모든 운이 풀려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92년생 가방 분실을 주의하세요.



57년생 신념을 가지고 매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69년생 혼자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81년생 파하는 일마다 마(魔)가 서려 있습니다. 93년생 헛된 꿈이나 욕망은 삼가하도록 하세요.



58년생 경망된 행동은 삼가해야겠습니다. 70년생 가족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세요. 82년생 안되는 일이 없고 부귀와 명예가 따릅니다. 94년생 모든 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59년생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71년생 오늘은 체력적으로 힘든 하루입니다. 83년생 모든지 양보하면 길합니다. 95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김상회의四季 2030의 명리학

20·30세대가 명리학 책의 주요 독자? 명리학이라고 하면 나이가 꽤 있는 중장년층의 관심이 큰 분야라고 생각한다. 최근 서점의 분위기를 보면 상황이 의외로 젊은 층이 운명과 사주에 관한 책을 찾으려 명리학책이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의 학 책은 일반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출간되고 있다. 명리를 일상과 연결해서 풀이한 책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명리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30세대가 학을 대하는 방식은 기성세대와 조금은 다른 것이 무엇보다 무겁고 지나치게 진지한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식의 단정적인 설명보다 자신의 성격이나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MBTI처럼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일종의 자기 탐구 놀이처럼 즐긴다. 사주와 오행을 상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기질을 이해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운이 쉬어가는 시기라며 위로를 얻기도 한다. 이들에게 불안한 현실을 버티게 하는 방편이면서 일상의 재미다. 취업난과 주거 불안 속에서 막막한 미래에 대해 작은 힌트라도 얻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명의 이치라는 지혜와 맞닿은 것이다. 운명을 쇼핑하듯 즐기는 모습은 매우 현대적이다. 어떤 방식이든 젊은 세대가 학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은 분명 긍정적이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운명을 궁극해한다는 것은 곧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이기도 하다. 명리학이 던지는 조언들이 그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인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젊은 세대에게 희망찬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9	1 5		8
1				
8		3 6 7		
9 2				1
4				7
	5			8 9
		6 7 8		4
				6
5		1 2	7	

9 3			4 6 7	
	7 2			
			8 3	
3		5 2		4
		8		
2		4 9		5
	2 5			
			8 5	
4 8 7				9 6

8 6 2	7 2 1	8 9 9
2 9 8	6 8 9 7	2 1
7 9 1	8 2 9	2 6 9
6 8 2	7 7 2 6 9 9	
2 8 9	9 6 2 1 8 7	
9 1 7	8 9 8 2 2 6	
1 2 6 2 9 8 9 7 8		
9 7 8 2 8 6 9 1 2		
8 2 9 9 1 7 6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9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